

‘캠핑족’ 늘자 소형 캠핑용품 뜬다

〈캠핑+피크닉〉

여름철 캠핑시즌을 맞아 집 근처에 있는 공원 등 도심 속에서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이 늘어나고 있다. 캠핑은 캠핑(Camping)과 피크닉(picnic)의 합성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짬을 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최근 젊은층의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최소한의 짐과 장비를 챙겨 떠나는 캠핑족 특성에 맞춘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멀리 떠나지 않고 도심 속에서 캠핑을 즐기는 만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캠핑용품이 주요 인기 품목이다.

19일 광주지역 5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피서용품 매출을 살펴본

‘캠핑을 소풍처럼’ 젊은층 트렌드로 자리매김

그늘막 텐트·캠핑 의자 매출 10~30% 신장

결과 ‘그늘막 텐트’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6%가 신장했다.

그늘막 텐트는 부피가 작고 가벼워 휴대가 간편하고, 한번에 설치할 수 있는 ‘원터치형 그늘막 텐트’는 복잡한 과정 없이 혼자서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부피가 크고 가격도 비싼 고가의 텐트에 비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광주 ‘도심 속 캠핑장’으로 떠오르는 있는 광주시 광산구 선운동 황룡진수공

원과 남구 승촌보 등에는 과거 가족단위 방문객이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친구나 연인 단위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있다.

대다수가 2~4인용 그늘막 텐트를 설치해두고 ‘배달음식’이나 바비큐 파티 등 간단한 식사와 함께 잠시 머물렀다 집으로 되돌아가는 ‘당일치기’ 형태로 여행을 즐기는 추세다.

이처럼 캠핑이 유행하면서 소형 캠핑용품도 덩달아 매출이 증가했다. ‘캠핑 의자’는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11.5% 늘었으며, 고온다습한 날씨에

음식물이 변하는 걸 방지해주는 휴대용 아이스박스도 신장률 8.6%를 기록했다.

전기나 캠핑용 발전기가 없어도 바람을 쐬 수 있는 소형 선풍기는 캠핑족들의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선풍기의 매출은 9.5%가 늘었고, 야외에서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맥주의 판매도 16.6%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과 기능성 면에서 텐트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그늘막 텐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설치가 간편하고 안전성을 갖춘 것은 물론 디자인도 신경쓴 신제품이 출시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워킹 마일리지 이벤트 참가

커피·상품권 선물 받으세요

광주신세계 다음달 15일까지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오는 8월 15일까지 워킹 마일리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스마트폰에 신세계백화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실행한 뒤 백화점 내에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커피교환권 등을 증정하는 행사다.

총 3단계로 1000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멤버스바커피 1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3000마일리지는 신세계상품권 5000원(10만원 이상 구매시), 5000 마일리지는 신세계상품권 1만원(20만원 이상 구매시)이다.

특히 이벤트 기간 중 2만 마일리지 이상 적립할 경우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조선호텔 1박 패키지를 선물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휴가철 야채·고기는 전통시장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저렴

휴가철 캠핑 식재료 중 채소와 고기를 전통시장에서, 가공식품을 대형마트에서 각각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 사이트에서 전국 대형마트, 전통시장,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등 81곳의 39개 캠핑용 식재료를 조사한 결과 채소와 고기 12개 품목 전통시장 판매가격은 2만117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다음은 대형마트(2만3851원), SSM(2만5487원), 백화점(3만7315원)의 순이었다. 전통시장에서 풋고추(64.1%), 깻잎(56.9%), 삼겹살(39.4%)을 사는 것이 백화점보다 싼다.

반면 쌀장, 즉석밥, 라면 등 가공식품 16개 품목의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5만1천69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그 뒤를 백화점(5만8878원)이 이었다.

품목별로는 대형마트의 쌀장 가격은 SSM보다 49.8%, 소금과 고추장은 전통시장보다 각각 36.1%, 28.6% 저렴했다.

4인 가족의 캠핑 식재료를 모두 한곳에서 살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12만7919원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었다. 대형마트 12만9097원, SSM 14만1253원, 백화점 18만7270원 등 순이다.

/*연합뉴스

국민 선호 수입과일 바나나·오렌지·포도

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수입과일은 바나나, 오렌지, 포도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내 수입 과일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일 수입액은 17억1000만 달러로 2000년 3억5000만 달러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일 수입량도 106만 400t으로 2000년 46만t보다 2.3배 증가했다.

수입액 비중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바나나(19.2%)였다. 이어 오렌지(12.9%), 포도(8.5%), 체리(7.3%), 과실·견과류(5.1%), 파인애플(4.2%), 키위(3.6%), 망고(2.7%) 순이었다. 2000년과 비교해 바나나(21.6%), 오렌지(18.2%)는 부동의 1, 2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2000년에 3~5위를 차지했던 오렌지 주스(14.7%), 과실 주스(5.0%), 포도 주스(4.3%)는 지난해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000년엔 상위 10위권에 들지 못했던 체리와 망고가 지난해엔 10위권에 포함됐다.

국민의 수입과일 선호도 등 식생활이 그만큼 변했다는 방증이다.

수입과일은 크게 신선과일과 가공과일로 나뉘는데 지난해 신선과일 수입액은 11억2000만 달러, 가공과일 수입액은 5억9000만 달러였다.

열대과일 수입액 비중은 전체의 27.9%, 온대과일 수입액 비중은 37.6%였다.

2000년엔 열대과일 수입액 비중이 전체의 25.2%, 온대과일 수입액 비중이 25.2% 등인 점을 고려하면 온대과일 수입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열대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이고 온대과일은 오렌지, 포도, 체리, 키위 등이다.

지난해 과일 수입 대상국 상위 10개국은 미국(32.6%), 필리핀(23.6%), 칠레(10.7%), 중국(4.2%), 태국(4.1%), 베트남(3.7%), 뉴질랜드(3.7%), 페루(2.6%), 미얀마(1.5%), 폴란드(1.3%) 순이었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애플매장에서 고객이 물놀이장에서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등 IT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블루투스 스피커·포켓 와이파이... 휴가철 IT제품 필수

롯데백화점 광주점 세일기간 40% 신장... 레저 카메라도 인기

평소에는 크게 쓰일 일이 없었던 IT제품들이 여름 휴가를 맞아 여행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템’(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 준비기간인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IT기기 품목 매출은 지난해 대비 약 40%이상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보조배터리와 야외 캠핑 등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해외여행시 데

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포켓 와이파이’ 기기 등이 대표적인 휴가철 IT제품이다.

특히, 더위에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패러글라이딩이나 스노쿨링 등 현장의 생동감을 담아낼 수 있는 ‘레저 카메라’의 판매도 늘어나는 추세다.

IT기기의 경우 가볍고 부피가 작아 휴대하기가 편한데다, 휴가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SNS에 남기려는 분위기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

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김용준 카메라 판매니저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레저 카메라로 유명한 고프로는 사전예약을 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무거운 카메라보다 필요한 기능들만 장착해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8월 31일까지 8종 삼성카메라 매장에서 레저카메라 5%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급 매”

광양, ㄷ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히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7억 8천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 H,010-3605-5000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나주, ㄷ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